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달랴 기사 비교를 통해 본 역대기 저자의 의도

황선우(총신대)

1. 서론

유다 왕조 가운데 아달랴 왕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받는다. 하나는 아달랴가 유다 유일의 여왕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유일의 비다윗 계열 왕이라는 점이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는 비다윗 계열인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 짧게 기록하고 오히려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은 다윗 계열의 왕 요아스에 의해 어떻게 물러났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한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여호야다의 혁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물러나기까지의 과정은 열왕기하 11장 1-20절과 역대하 22장 10절-2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의 절반에 가까운 본문은 사무엘-열왕기에 기록된 본문으로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¹ 어떤 경우는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열왕

1 Isaac Kalimi,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기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만 어떤 경우는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열왕기 본문을 축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 차이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은 역대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축약, 확장, 수정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고 다소 사소한 차이의 경우는 역대기 저자의 저본(Vorlage)과 사무엘-열왕기 마소라 텍스트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² 칼리미(Isaac Kalimi)가 언급하듯이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 연구에 있어 학계의 전통적인 일반적 견해는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열왕기를 저본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³ 이 견해와 달리 올드(A. G. Auld)는 사무엘-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제3의 자료를 공유하여(shared text) 그 자료로부터 지금의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⁴ 올드의 주장은 학계에서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크나퍼스(Gary N. Knoppers)와 맥켄지(Steven L. McKenzie)가 반박하듯이 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만큼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⁵

필자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역대기 저자가 역대하 22장

Eisenbrauns, 2005), 2.

- 2 Werner Erich Lemke, "Synoptic Studies in the Chronicler's History" (T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63), 3-8.
- 3 Isaac Kalimi, *윗글*, 5.
- 4 A. G. Auld,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44); "W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Books of Chronicles?",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1-99; "Synoptic David: The View from Chronicles", K. L. Noll and Brooks Schramm(eds.), *Raising Up a Faithful Exegete*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117-128.
- 5 Gary N. Knoppers, *1 Chronicles 1-9, AB* (New York: Doubleday, 2003), 66-68; Steven L. McKenzie, "The Chronicler as Redactor",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80-87.

10절-23장 21절의 아달라 기사를 기록함에 있어 열왕기하 11장 1-20절을 그의 저본으로 삼았다고 본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의 아달라 기사를 기록함에 있어 열왕기하 11장 1-20절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열왕기 본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필자는 이 소론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달라 본문을 비교하고 역대기 저자의 수정과 보완에 반영된 역대기 저자의 의도(*Tendenz*)를 파악하고자 한다.⁶ 사무엘-열왕기의 역대기의 평행본문 비교 가운데 특별히 아달라 본문의 비교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아달라가 유다 유일의 비다윗 계열 왕이라는 점에 있다. 역대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다윗언약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비다윗 계열 왕을 축출하고 다윗 계열 왕을 회복시키는 아달라 기사는 역대기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이다.⁷ 본 연구는 그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아달라 기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두 아달라 본문의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 1) 왕하 11:1-3//대하 22:10-12 아달라의 등극과 요아스의 생존
- 2) 왕하 11:4-8//대하 23:1-7 여호야다의 혁명: 왕궁과 성전호위
- 3) 왕하 11:9-12//대하 23:8-11 요아스의 왕위 등극
- 4) 왕하 11:13-16//대하 23:12-15 아달라의 처형
- 5) 왕하 11:17-20//대하 23:16-21 언약체결과 개혁

6 열왕기와 역대기 주석 이외에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달라 본문을 비교한 연구는 희귀하다. 아달라 평행본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Robin Gallaher Branch, "Athaliah, a Treacherous Queen: A Careful Analysis of her story in 2 Kings 11 and 2 Chronicles 22:10-23:21", In *die Skriflig* 38 (2004): 537-559; Christopher Begg, "Athaliah's Coup and Overthrow According to Josephus," *Antonianum* 71 (1996), 191-210.

7 Sunwoo Hwang, *The Hope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Kingdom in the Light of the Davidic Covenant in Chronicles* (Lewiston: Edwin Mellen, 2014), 203-209.

2. 아달라의 등극과 요아스의 생존(왕하 11:1-3//대하 22:10-12)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아사랴)가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방문한다(왕하 8:29//대하 22:6). 이때 예후는 이스라엘에 가서 요람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인다(왕하 9:27//대하 22:7). 이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다른 유다의 왕과 달리 왕이 될 때의 나이, 통치 연한, 왕의 어머니 이름 등의 왕위 등극 문구를 적지 않고 아달라가 왕으로 통치했다는 사실만 기록한다. 이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아달라를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⁸

왕하 11:1-3 ⁹	대하 22:10-12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¹⁰ 모두 멸절하였으나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8 Mordechai Cogan and Hayim Tadmor, *II Kings*, AY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33;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314.

9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글 번역은 개역 개정을 따른 것이다.

10 평행본문 중 볼드체는 두 평행본문의 주요한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3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	------------------------------------------------------

1) 왕의 자손 vs. 유다 집의 왕국의 씨(왕하 11:1//대하 22:10)

열왕기하 11장 1절에는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아달라가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왕의 자손”을 “유다 집의 왕국의 씨”로 수정하였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하지만 역대기의 표현이 더 강렬하다. “씨”를 진멸하였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존속에 위협이 가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¹¹ 아달라가 다윗 계열의 씨를 진멸하기 전에도 유다 왕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을 다 살해함으로 다윗 계열의 후손들이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고(대하 21:4),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하시야(여호아사스)를 제외한 여호람의 모든 아들을 죽임으로 다윗 계열이 위협에 봉착한 때가 있었다(대하 21:16-17). 역대기 저자는 이에 더하여 아달라의 만행으로 다윗 계열이 위협을 받은 것을 강조하였는데 역대기 저자의 궁극적인 의도는 다윗 계열이 이러한 연속적인 위협 가운데에서도 다윗언약에 기반하여 견재할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역대기 저자는 같은 아달라 기사 중 역대하 23장 3절의 역대기 고유기록(*Sondergut*)에서도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는 구절을 통하여 다윗언약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2)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왕하 11:2//대하 22:11)

요아스를 숨긴 아하시야의 누이가 열왕기에는 여호세바(*יְהוֹשֵׁבָא*)

11 Louis C. Jonker, *1 & 2 Chronicles*, UBCS (Grand Rapids: Baker, 2013), 241.

라고 기록된 반면 역대기에는 여호사브앗(יְהוֹשָׁבָבֵת)이라고 기록되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세바의 단순한 이형(variant)으로 이 차이에 역대기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² 아마도 역대기 저자가 여성형을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어 철자, 타브(ת)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¹³

열왕기하 11장 2절과 역대하 22장 11절의 두드러진 차이는 역대기 저자가 절 뒷부분에 여호사브앗의 가족관계를 추가한 것이다. 여호사브앗이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것인데, 여호사브앗이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라는 것은 이미 열왕기하 11장 2절의 앞부분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고 여호사브앗이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새롭게 제공하는 정보이다. 램키는 이 부분이 역대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추가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본문 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¹⁴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브앗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음을 밝힘으로써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는 것이 용이하였음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¹⁵ 이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 것은 역대기의 아달랴 기사에서 열왕기와 달리 성전 출입자격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다. 역대하 23장 6절에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고 언급하였고 역대하 23장 19절은 성전의 문지기가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을 기록하였다.

12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 (Leiden: Brill, 2001), 397.

13 Ralph W. Klein,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12), 321-22.

14 Werner Erich Lemke, *윗글*, 47.

15 Edward Lewis Curtis and Albert Alonzo Madsen, *The Book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0), 422-23; Ralph W. Klein, *윗글*, 322.

3) 육 년간의 보호(왕하 11:3//대하 22:12)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본문을 따라 요아스가 성전에서 보호되는 동안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서술한다. 6년 동안의 아달라의 통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통해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아달라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두 평행본문 간에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열왕기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성전에 6년 동안 숨었다고 기록된 것과 달리 역대기에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고 기록한다. 야벳(Sara Japhet)은 여기서 복수가 사용된 것은 여호야다의 혁명이 복수의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⁶ 야벳의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역대기 저자가 복수 “그들”을 사용한 것은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에서는 바로 앞 절에서 여호사브앗이 여호야다의 남편으로 소개되었고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가 여호사브앗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도움 가운데 성전에 숨겨졌음을 말하기 위해 “그”를 “그들”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차이점은 열왕기의 “여호와와의 성전”을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꾼 것인데 역대기의 아달라 기사에도 역대하 23장 5절과 18절에는 “여호와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역대기 저자는 이 두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6 Sara Japhet, *I & II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828.

3. 여호야다의 혁명: 왕궁과 성전호위(왕하 11:4-8//대하 23:1-7)

아달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린 지 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성전에 숨겼던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킴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거사를 일으킨다. 이는 아달라의 입장에서는 쿠데타였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염원하는 이들에게는 혁명이자 개혁의 시작이었다. 여호야다는 용병과, 호위병,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아 혁명을 지휘한다. 열왕기하 11장 4-8절//역대하 23장 1-7절은 여호야다가 혁명의 동참자들을 불러 모아 아달라가 있는 왕궁과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호위하게 한 것을 기록하는데 열왕기에서는 혁명의 동참자로 용병인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을 내세운 반면 역대기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더 나아가 온 회중이 동참했음을 강조한다.¹⁷

왕하 11:4-8	대하 23:1-7
<p>4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p> <p>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p>	<p>23:1 제칠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p> <p>2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니라</p> <p>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p>

17 Robin Gallaher Branch, *읽글*, 541.

<p>5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 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삼분의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p> <p>6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p> <p>7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 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p> <p>8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 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 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p>	<p>4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 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 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p> <p>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 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전 뜰에 있 을지라</p> <p>6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 룩한즉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 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며</p> <p>7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 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 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p>
-----------------------------------------------------------------------------------------------------------------------------------------------------------------------------------------------------------------------------------------------------------------------------	------------------------------------------------------------------------------------------------------------------------------------------------------------------------------------------------------------------------------------------------------------------------------------------------------------------------------

1) 혁명의 1차 동참자(왕하 11:4//대하 23:1)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혁명의 1차 동참자를 불러 소집하는데 그 대상이 열왕기하 11장 4절에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 부장들이라고 기록된 반면 평행본문인 역대하 23장 1절에는 다섯 명의 백부장들로 기록되어 있다. 가리 사람(Carians)은 아나톨리아 서남 부 지역 출신으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잘 알려진 용병이었다.¹⁸ 루돌 프(Wilhelm Rudolph)와 윌리엄슨(H. G. M. Williamson)과 클라인(Ralph W. Klein)은 다섯 명의 백부장의 이름 중 엘리사밧만 제외하고 모두 역대기 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고 역대기 저자 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에 접근할 수 있

18 Benjamin Scolinc, "King David's Spear, the Weapons of the Carians, and the Overthrow of Athaliah in 2 Kings 11", *Jewish Bible Quarterly* 49 (2021), 260.

는 레위인 백부장들로 수정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⁹ 그러나 야벳이 지적 하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매우 흔한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한 명(엘리사밧)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름이 역대기의 레위인과 제사장 리스트에 나온다고 하여 이들을 모두 레위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²⁰ 오히려 탐슨(J. A. Thompson)이 제안하듯이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에 언급한 호위병(royal bodyguard)의 백부장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모두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적은 백부장의 명단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 아닌 호위병의 백부장의 이름만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언약(왕하 11:4//대하 23:1-3)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여호야다는 그가 부른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준다. 여호야다가 두 그룹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은 후 왕자 요아스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 그 언약의 내용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혁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1장 4절을 역대하 23장 1-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열왕기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²²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열왕기하 11장 4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언약을 맺은 백부장들을 유다 고을로 보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부

19 Wilhelm Rudolph,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Mohr Siebeck, 1955), 271; H. G. M. Williamson, *윗글*, 315; Ralph W. Klein, *윗글*, 323.

20 Sara Japhet, *윗글*, 829-830.

21 J. A. Thompson, *1, 2 Chronicle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307.

22 벡(Christopher Begg)은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도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 9, 143-149에서 역대기의 확장된 리스트를 따름을 보였다. Christopher Begg, *윗글*, 195.

르고 온 회중과 요아스가 언약을 맺게 한다. 이 두 번째 언약은 회중이 요아스와 직접 맺은 것으로서 언약을 맺은 후 여호야다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혁명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역대기의 이 확장과 추가는 역대기 저자의 세 가지 의도를 보여준다. 첫째, 역대기 저자는 이 혁명에 레위 사람이 동참했음을 강조한다.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에는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은 백부장들이 우선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다. 이것은 같은 아달라 기사인 역대하 23장 6절에 기록되었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서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지키기에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부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부른 것은 포로기 이후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의 높은 위상을 반영한다.

역대기가 기록된 포로기 이후 유다에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중요성은 역대기의 구성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다.²³ 역대상 2장부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파별 족보를 보면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기록되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역대기 저자는 남 유다를 구성하였던 유다 지파(대상 2:3-4:23)와 베냐민 지파(대상 8:1-40)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고 성전을 섬기던 레위 지파를 가운데에 배치하였다(대상 6:1-81). 레위 지파는 족보의 가운데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81절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이

23 소형근,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16권 (2010년 12월), 66-68.

24 황선우, “역대기의 구성에 나타난 포로기 이후의 살림”, 『신학지남』 325호 (2015년 겨울), 47-48.

는 레위 지파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준다.²⁵ 레위 지파의 족보가 역대기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잇사갈 지파의 족보에는 다섯 절(대상 7:1-5), 납달리 지파에는 한 절(대상 7:13)을 할애하고, 단과 스블론 지파의 족보는 아예 생략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3-26장에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엘-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의 고유기록(*Sondergut*)으로 역대기 저자가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열왕기하 11장 4절이 역대하 23장 1-3절로 확대된 것을 통해 역대기 저자가 이 혁명이 단지 여호야다와 용병들과 호위병들이 벌인 것이 아닌 폭넓은 지지를 받은 혁명임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 혁명은 왕궁 호위병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지한 명분 있는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다윗의 마지막 연설(대상 29:6)과 솔로몬의 기브온 제사(대하 1:2), 솔로몬의 언약궤 안치(대하 5:2)에도 참여했던 집단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인식된다.²⁷ 또한 온 회중이 여호야다의 혁명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역대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모든 이스라엘”(כָּל־יִשְׂרָאֵל/콜 이스라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⁸ “모든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대상 11:1-3), “모든 이스라엘”이 언

25 윗글, 48.

26 H. G. M. Williamson, 윗글, 315.

27 William Johnstone, *1 & 2 Chronicles II*,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23; 황선우, “역대하 21, 23장의 다윗 계약에 나타난 다윗 왕조 회복의 소망”, 『Canon & Culture』 11호 (2012년 봄), 114.

28 Raymond B. Dillard, *2 Chronicl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181. 역대기의 “모든 이스라엘” 사상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102-110.

약제를 기랏여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 모였고(대상 13:5), “모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함께한 것과 같이(대하 7:8) 온 회중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다.

셋째,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3장 3절에서 여호야다의 입을 통하여 온 회중에게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함을 선포함으로써 다윗언약을 환기시켰다.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다윗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것은 역대기가 기록된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가 다윗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회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²⁹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바사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언약을 근거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아달랴가 통치한 7년 동안 다윗 왕조가 끊어졌지만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야 했듯이, 역대기 저자는 유다 멸망 이후에 다윗 왕조가 계속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언약을 근거로 다윗 왕조 회복의 소망을 드러내었다.³⁰

3) 왕궁과 성전호위(왕하 11:5-8//대하 22:4-7)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언약을 맺은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회중은 여호야다의 지휘를 따라 혁명을 실행한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아달랴 왕이 있는 왕궁과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호위한다. 성전을 호위하는 것은 요아스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왕궁을 호위하는 것은 아달랴 왕이 피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³¹

29 Raymond B. Dillard, *룻*, 148-149.

30 Steven L. McKenzie, *1-2 Chronicles*, AOTC (Nashville: Abingdon, 2004), 312-313.

31 Robert L. Cohn,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78.

그런데 왕궁과 성전호위에 관하여 열왕기와 역대기 본문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열왕기 본문에는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삼 분의 일이 안식일에 들어오는 당번으로 기록되고(왕하 11:5-6) 삼 분의 이는 안식일에 나가는 비번으로 기록되었는데(왕하 11:7), 당번인 삼 분의 일은 여호야다에게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비번인 삼 분의 이는 비번이지만 성전에서 요아스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세부적으로 왕궁을 지키는 삼 분의 일의 병력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왕궁과 수르문과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킨다(왕하 11:5-6). 성전에서 요아스 왕을 호위하는 병력은 그들의 대열을 침범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왕하 11:8).

열왕기 본문과 달리 역대기 저자는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 자들로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이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세운다. 이 차이로 인해 두 본문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여호야다가 주도하는 혁명에는 군 병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열왕기 저자는 군 병력을 부각하여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주목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역대기 저자는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문과 왕궁과 기초문을 지켰다고 기록한다(대하 23:4-5). 개역 개정에서 “문을 지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שָׂרְיָהִם**(쇼아레 하시핌) 이를 직역하면 “문지기들(gatekeepers)”인데 이는 성전의 문지기들을 말한다.³³ 기초문(**הַיְסוּד**/샤아르 하에쑤드)은 어디에 위치한 문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어근 **סור**(쑤르)의 유사성을 볼 때 평행본문인 열왕기하 11장 6절의 왕궁의 수르문(**שַׁעַר סוּר**/샤아르 쑤르)

32 Andrew E. Hill, *1 & 2 Chronicle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3), 522.

33 Sara Japhet, *윗글*, 831.

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³⁴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성전 문과 왕궁과 왕궁의 기초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특히 역대기의 고유기록(*Sondergut*)인 역대하 23장 6절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외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역대하 23장 3절에는 “온 회중”도 혁명에 참여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성전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역대하 23장 5절에서 명시하듯이 성전 뜰에만 있을 수 있었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1장 8절에 기록된 호위병들만 요시야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무기를 가지고 성전에서 왕을 호위하였음을 알려준다(대하 22:8). 역대기 저자가 혁명을 위해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부각한 것은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포로기 이후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높은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³⁵ 아울러 역대기 저자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과 성전 안의 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혁명 중이라도 성전의 거룩성은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강조한 것이다.³⁶

34 Ralph W. Klein, *윗글*, 325.

35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14권 (2012년 3월), 142.

36 Sara Japhet, *윗글*, 832.

4. 요아스의 왕위 등극(왕하 11:9-12//대하 23:8-11)

이 단락은 여호야다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 단락 앞에서 여호야다는 서로 다른 두 그룹에게 지시를 내렸다. 열왕기에서는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역대기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단락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각각 앞부분과 호응하여 열왕기에서는 백부장들이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 역할을 수행한 것을 기록하였고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역할을 수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왕하 11:9-12	대하 23:8-11
9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8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10 제사장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10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1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1) 혁명의 동참자(왕하 11:9-12//대하 23:8-11)

이 단락에서 역대기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레위인의 역할을 드러낸 것이고, 둘째는 이 혁명이 단순히 여호야다와 왕궁 호위병들이 공모하여 일으킨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 그룹이었던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일으킨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열왕기에서 백부장들이 안식일에 당번과 비번인 호위병들을 거느렸다면 역대기에는 이 혁명이 일어난 안식일의 당번인 레위인들과 비번인 레위인들이 동참하였다. 역대기 저자는 8절 뒷부분에 여호야다가 비번인 레위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서술을 추가함으로 모든 레위인들이 동참하였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3장 10절에서 열왕기하 11장 11절의 “호위병”(חַרְטֻמֵּי/하리쯔뎀)을 “백성들”(כָּל־הָאָמָּה/콜 하암)로 수정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요아스를 호위하는데 동참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열왕기하 11장 12절//역대하 23장 11절에서도 역대기 저자는 혁명의 동참자가 많음을 강조하였다. 열왕기에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였다고 기록한 반면 역대기에는 여호야다 개인이 아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였다고 세심하게 수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에게 기름을 부은 자도 열왕기에는 여호야다 개인으로 기록되었지만 역대기에는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로 기록되었는데 이 작은 수정에서도 혁명이 많은 이들의 협력 가운데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길 원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³⁷

2) 다윗 왕의 무기 수여(왕하 11:11//대하 23:10)

이 평행절에서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37 윗글, 833-834.

수여하는데 열왕기에는 창과 방패를 수여한다고 기록된 반면 역대기에는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수여한다고 기록되었다. 열왕기 저자가 기록한 방패(מִשְׁלָטִים/하세라팀)를 역대기 저자가 큰 방패(מִגְּזָרִים/함마기 노트)와 작은 방패(מִשְׁלָטִים/하세라팀)로 나누어 기록한 것은 사소한 차이이긴 하나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 18장 7절과 역대하 12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역대상 18장 17절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הַזָּהָב הַשְּׁלֵטִי/셀태 하자하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을 기록하고, 역대하 12장 10절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자 르호보암이 놋 방패(בְּרִזְיָהּ מְאֻזָּה/마기네 네호세트)로 대체한 것을 기록하는데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3장 9절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아달라의 처형(왕하 11:13-16//대하 23:12-15)

7년 동안 끊어졌던 다윗 계열의 왕위 회복을 위해 혁명에 동참한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였다. 이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에 아달라는 혁명의 현장인 성전으로 들어가 이를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혁명에 동참한 무리에게 처형당하였다.

38 Ralph W. Klein, *윗글*, 325.

왕하 11:13-16	대하 23:12-15
<p>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p> <p>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p> <p>...</p>	<p>12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p> <p>13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p> <p>...</p>

1) 백성들의 기쁨(왕하 11:13-14//대하 23:12-13)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본문을 수정, 확대하여 백성들의 기쁨과 찬양을 강화함으로써 이 혁명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축제임을 나타낸다. 특히 역대하 23장 12절의 앞부분에서는 열왕기하 11장 13절의 앞부분 두 단어의 위치를 바꿈으로 백성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묘사한다.

וַתִּשְׁמַע עֲתֻלְיָהוּ אֶת־קוֹל הַרְצִיִן הָעָם

아달라가 호위병,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왕하 11:13a, 사역)

וַתִּשְׁמַע עֲתֻלְיָהוּ אֶת־קוֹל הָעָם הַרְצִים וְהַמְהַלְלִים אֶת־הַמֶּלֶךְ

아달라가 기뻐 뛰며 왕을 찬양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대하 23:12a, 사역)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대기 저자는 **הַרְצִיִן**(하라쥘/호위병)과 **הָעָם**(하암/그 백성)의 자리를 바꾸어 **הָעָם הַרְצִים**(하암 하라쥘/뛰는 백성)으로 기록했다. **הַרְצִיִן**(하라쥘/호위병)은 **הַרְצִים**(하라쥘/호위병)의 이형(variant)으로 **רוּץ**(루쯔/뛰다)의 남성, 복수 분사형에 정관사가 더해진 형

www.kci.go.kr

태이다.³⁹ רָץ(루쯔)는 “뛰다”를 의미하는 동사인데 그 분사형, מְרָץ(라쥘/호위병)은 왕 앞에서 뛰는 호위병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⁰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본문에서 “호위병”으로 사용된 מְרָץ(하라쥘)을 보다 일반적인 남성, 분사 복수형태인 מְרָצִים(하라쥘/뛰는)으로 바꾸고 מְרָץ(하암/그백성) 뒤에 위치시켜 백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기쁨 가운데 뛰고 있는 백성을 묘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본문에 “왕을 찬양하는”(אֲתֵּי־הַמְּלָכִים אֶת־הַמְּלָכִים/베함할림 에트 함멜레크)을 추가하여 요아스 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대하 23장 11절에서 “왕을 찬양하는”을 추가한 역대기 저자는 그 다음절 역대하 23장 12절에서도 이와 호응하는 구절,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를 추가하여 한껏 고조된 요아스의 즉위식을 보여준다.

6. 언약체결과 개혁(왕하 11:17-20//대하 23:16-2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가 죽은 후에 여호야디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게 하고 온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을 부순다. 그 후에 요아스는 왕궁으로 인도되어 그의 왕좌에 앉는다.

39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I* (Leiden: Brill, 2001), 1207.

40 F. Brown, S. Driver,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6), 930.

왕하 11:17-20	대하 23:16-21
<p>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p> <p>18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p> <p>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 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p> <p>20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p>	<p>16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p> <p>17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p> <p>18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 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 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p> <p>19 또 문지기를 여호와와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p> <p>20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p> <p>21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p>

1) 언약(왕하 11:17//대하 23:16)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여호야다는 우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한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제단과 우상을 헐어버린 것을 볼 때 이 언약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일 것이다. 이 언약 후에 같은 절에서 열

왕기 저자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것을 기록한다. 이 언약은 백성들이 다윗 계열의 요아스를 그들의 합법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치적 언약이었을 것이다.⁴¹ 그런데 역대하 23장 16절에는 여호야다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의 언약만 기록한다. 루돌프는 열왕기하 11장 17절의 두 번째 언약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두 번째 언약을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윌리엄슨은 역대기 저자가 엄숙한 재헌신의 행위로서의 언약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았다.⁴²

그러나 역대기 본문에 기록된 언약은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열왕기 본문의 첫째 언약에 상응한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 본문의 두 번째 언약은 생략한 것이다. 열왕기 본문에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된 반면 역대기 본문에는 여호야다와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의 두 번째 언약, 즉 왕과 백성 사이의 정치적 언약을 생략한 것은 열왕기 본문의 반복을 피하거나 열왕기 본문의 언약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역대기 저자가 역대하 23장 3절에서 이미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열왕기에 없는 왕과 회중 사이의 언약을 역대기 저자는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41 Ralph W. Klein, *윗글*, 329.

42 Wilhelm Rudolph, *윗글*, 272; H. G. M. Williamson, *윗글*(1982), 317.

43 J. A. Thompson, *윗글*, 310.

2) 성전경비와 운영(왕하 11:18//대하 23:17-18)

바알의 산당을 헐 후에 여호야다는 관리자를 세워 여호와와의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게 하는데 열왕기하 11장 18절에서는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였다고 짧게 기록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3장 18-19절을 추가하여 성전경비와 운영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는 포로기 이후의 레위인, 제사장, 성전 중심의 사회에서 역대기 저자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과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직원들을 레위 제사장(מִנְחֵי הַמִּזְבֵּחַ/하코하님 할레비임)의 수하에 맡겼다고 기록함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부각했고, 다윗이 정한 반열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노래하게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포로기 후기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윗 계열의 왕을 회복시킨 때에 다시 한번 “다윗”을 환기시켰다.⁴⁵ 또한 성전에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을 기록함으로써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였다.

3) 왕궁까지 동행한 사람들(왕하 11:19//대하 23:20)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성전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요아스는 이제 왕궁으로 인도된다. 여호야다가 왕을 왕궁으로 인도할 때 열왕기에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이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었고 역대기에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와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백부장들과 온 백성들은 두 책에 모두 기록되었는데 역대기에는 열왕기의 가리 사람과 호위병 대신에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44 Raymond B. Dillard, *윗글*, 184; Steven L. McKenzie, *윗글*, 312.

45 안석일, “역대기의 모형론에 지닌 의미와 기능”, 『구약논집』 18권 (2020년 1월), 128.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대기 저자가 이 혁명이 소수의 왕궁 경비병들만 참여한 것이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⁴⁶

4) 아달라가 죽은 장소(왕하 11:20//대하 23:21)

아달라 평행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두 평행본문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열왕기에는 무리가 아달라를 “왕궁에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왕궁에서”가 삭제되어 있다. 여기서 무리가 아달라를 죽인 것에 사용된 동사, **הִמִּיתוּ**(헤미투/그들이 죽였다)는 대과거(pluperfect) 시제로 이해해야 한다.⁴⁷ 사소한 차이지만 역대기 저자가 왜 “왕궁에서”를 삭제하였을까? 이는 열왕기 본문에 아달라를 죽인 장소가 다소 상이하게 기록되어 장소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하 11장 16절에는 아달라를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 11장 20절에는 왕궁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넓게 보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을 왕궁으로 칭할 수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두 표현의 차이로 인해 아달라를 죽인 장소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칼리미가 제시한 역대기 저자의 기술 원리 중 하나인 “The Removal of Internal Contradictions in Samuel-Kings”(사무엘-열왕기의 내적 모순 제거)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⁴⁸

46 Raymond B. Dillard, *윗글*, 184.

47 Donald J. Wiseman, *1 and 2 Kings*, TOTC (Downers Grove: IVP, 1993), 249.

48 Isaac Kalimi, *윗글*, 38-46.

7. 결론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달라 기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대기 저자는 다윗 계열의 왕위를 회복시키는 혁명이 단순히 여호야다와 왕궁 호위병들의 모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폭넓은 지지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열왕기에서는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고 요아스 왕을 본 후 혁명에 동참하였다고(왕하 11:4) 기록한 반면 역대기에서는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은 후,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온 회중이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음으로 혁명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대하 23:1-3). 온 회중이 혁명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역대기의 주요 주제인 “모든 이스라엘”(כָּל־יִשְׂרָאֵל/콜 이스라엘)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대하 22장 10절에도 열왕기하 11장 11절의 “호위병”이 아닌 “모든 백성”이 요아스를 호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요아스의 왕의 등극을 위해서 요아스를 인도할 때에도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3장 11절에서 열왕기하 11장 12절의 “여호야다”를 “무리”로 수정하여 요아스가 많은 이들의 인도를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아달라가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는 군중의 함성을 들은 것에 관하여도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였는데(왕하 11:13) 역대기에서는 아달라가 백성들이 기뻐 뛰며 요아스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이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궁으로 인도할 때에 열왕기에는 “가리 사람과 호위병”이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왕하 11:20) 역대기 저자는 이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로 수정함으로써 이 혁명이 백성의 폭넓은 지지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역대기 저자는 여호야다의 혁명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에는 혁명의 시작 단계에서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레위 사람을 불러서 혁명에 동참시켰고(대하 23:2),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역할도 안식일에 당번과 비번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대하 23:4-5).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에 관하여도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와 달리 상세하게 기록한다(대하 23:18-19).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부각된 것은 포로기 이후,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역대기 아달라 기사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각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였다. 역대기 고유기록인 역대하 23장 6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백성들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에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대하 23:5). 열왕기에는 왕을 호위하는 대열을 침범한 자를 죽이라고 기록되었는데(왕하 11:8) 역대기 저자는 왕을 호위하는 레위 사람에게 성전을 들어오는 외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기록함으로써(대하 23:7)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고유기록인 역대하 23장 19절에서도 여호야다가 성전의 문지기들에게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넷째, 역대기 저자는 다윗 계열의 왕 요아스의 회복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다윗언약,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열왕기에는 아달라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후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역대기 저자는 “왕의 자손”을 “유다 집의 왕국의 씨”로 수정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씨를 멸절하려는 아달라의 시도를 더 강렬하게 드러내었다. 이는 결국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언약대로 다윗계

열의 왕이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혁명 초반에 온 회중이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역대기 저자는 여호야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함으로써(대하 23:3) 다윗언약을 환기시키는데 이 여호야다의 말은 역대기의 고유기록이다. 또한 역대하 23장 18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말할 때에도 다윗이 반열을 나눈 대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역할을 수행함을 말함으로써 다윗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소형근,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16권 (2010년 12월), 54-70.
- 안석일, “역대기의 모험론이 지닌 의미와 기능”, 「구약논집」 18권 (2020년 1월), 108-133.
-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14권 (2012년 3월), 138-158.
- 황선우, “역대하 21, 23장의 다윗 계약에 나타난 다윗 왕조 회복의 소망”, 「Canon & Culture」 11호 (2012년 봄), 97-122.
- _____, “역대기의 구성에 나타난 포로기 이후의 살림”, 「신학지남」 325호 (2015년 겨울), 35-60.
- Auld, A. G.,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44).
- _____, “W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Books of Chronicles?”,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1-99.
- _____, “Synoptic David: The View from Chronicles”, K. L. Noll and Brooks Schramm(eds.), *Raising Up a Faithful Exegete*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117-128.
- Begg, Christopher, “Athaliah’s Coup and Overthrow According to Josephus”, *Antonianum* 71 (1996), 191-210.

- Branch, Robin Gallaher, "Athaliah, a Treacherous Queen: A Careful Analysis of her story in 2 Kings 11 and 2 Chronicles 22:10-23:21", *In die Skriflig* 38 (2004), 537-559.
- Brown, F. et al.,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6).
- Cohn, Robert L., *2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 Cogan, Mordechai and Tadmor, Hayim, *II Kings*, AY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Curtis, Edward Lewis and Madsen, Albert Alonzo, *The Book of Chronic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0).
- Dillard, Raymond B., *2 Chronicl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 Hill, Andrew E., *1 & 2 Chronicle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Japhet, Sara, *I & II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 Johnstone, William, *1 & 2 Chronicles II*,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Jonker, Louis C., *1 & 2 Chronicles*, UBCS (Grand Rapids: Baker, 2013).
- Hwang, Sunwoo, *The Hope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Kingdom in the Light of the Davidic Covenant in Chronicles* (Lewiston: Edwin Mellen, 2014).
- Kalimi, Isaac,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 Klein, Ralph,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12).
- Knoppers, Gary N., *1 Chronicles 1-9*, AB (New York: Doubleday, 2003).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 (Leiden: Brill, 2001).
- _____,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I* (Leiden: Brill, 2001).
- Lemke, Werner Erich, "Synoptic Studies in the Chronicler's History" (T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3).
- McKenzie, Steven L., "The Chronicler as Redactor",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80-87.
- _____, *1-2 Chronicles*, AOTC (Nashville: Abingdon, 2004).
- Rudolph, Wilhelm, *Chronikbücher*, HAT (Tübingen: Mohr Siebeck, 1955).
- Scolinc, Benjamin, "King David's Spear, the Weapons of the Carians, and the

Overthrow of Athaliah in 2 Kings 11”, *Jewish Bible Quarterly* 49 (2021), 257-261.

Thompson, J. A., *1,2 Chronicle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검색어

아달라, 여호야다, 요아스, 다윗왕조, 역대기, 열왕기

[ABSTRACT]

The Chronicler's Intention Revealed in the Comparison of the Athaliah Accounts between Kings and Chronicles

Sun-Woo Hwang
Chongshin University

Whereas the narrative of the non-Davidic Athaliah's reign in Kings and Chronicles is short, both books narrate in detail how Athaliah was expelled by the Davidic king, Joash, who was guided by the priest, Jehoiada. The seven-years reign of Athaliah and the murder of her is recorded in 2 Kings 11:1-20 and 2 Chronicles 22:10-23:21. Although the Chronicler followed his *Vorlage*, 2 Kings 11:1-20, in 2 Chronicles 22:10-23:21, he altered and added in many plac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Chronicler's intention reflected in the Chronicler's alteration and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Athaliah texts in Kings and Chronicles. For the comparison, I divide the texts into five parts: 1) The enthronement of Athaliah and Joash's survival (2 Kgs 11:1-3//2 Chr 22:10-12), 2) Jehoiada's revolution: the guard of the palace and the temple (2 Kgs 11:4-8//2 Chr 23:1-7), 3) Joash's enthronement (2 Kgs 11:9-12//2 Chr 23:8-11), 4) The execution of Athaliah (2 Kgs 11:13-16//2 Chr 23:12-15), and 5) covenant and reformation (2 Kgs 11:17-20//2 Chr 23:16-21).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the Athaliah texts of Kings

www.kci.go.kr

and Chronicles, I propose four intentions of the Chronicler. First, the Chronicler revealed that the Jehoiada's revolution was not just implemented by the royal bodyguards but also supported by the Israelites on a large scale. Second, the Chronicler stressed the Levites' and priests' roles in the revolution, which reflected the leadership of the Levites and priests in the postexilic Israelites community. Third, as the Chronicler underscored the roles of the Levites and priests, he emphasized the holiness of the temple. Fourth, the Chronicler reminded the readers of the significance of David, the Davidic covenant, and the Davidic kingdom in the account of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king, Joash.

key words

Athaliah, Jehoiada, Joash, Davidic Kingdom, Chronicles, Kings

투고일 : 2023년 02월 20일

심사일 : 2023년 02월 27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27일

www.kci.go.kr